

“올 상반기 내 1200만 접종 총력”

정 총리 “이달 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접종센터 운영 AZ 백신 1차 86% 예방 효과… 접종효과 실제 확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코로나 19 백신 접종 목표와 관련해 “정부는 상반기 내에 1200만 이상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차질없는 접종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만 회분이 들어오고, 6월말까지 화이자 백신 30만 회분이 도입될 것”이라며 “화이자로부터는 총 700만 회분이 6월 까지 매일 꾸준히 도입될 것이고, 아



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분기에 700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확정된 백신 공급 물량과 우리의 접종 역량,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감안한다면 ‘상반기 중 1200만명 접종’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감안한다면 ‘상반기 중 1200만명 접종’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백신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

국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차질없는 접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분기 내 총 1473만회분 도입 계획에는 변화가 없고 접종 속도를 높여 목표했던 1200만명 접종을 상반기 내에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 총리는 접종센터 확대 계획과 관련해 “현재 전국 46개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주 새로운 접종센터를 개소해 4월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접종센터를 열겠다”며 “특히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보호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접종센터의 문을 열어 보다 여유 있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 편안한 접종, 안

전한 귀가, 세심한 이상반응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시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해 주시고, 여러 돌발 상황에서 최대한 응통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국내 연구진이 한 달간 접종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에 86%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또한 1차 접종 이후 아직까지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없었던 것으로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다. 백신 접종 효과 실제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4·7 재·보궐... 사전투표하는 문 대통령 부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익산, 홀로그램 산업 핵심’

XR 소부장 개발지원센터 구축 공모 선정 민주김수홍 의원 올 예산 반영 노력 ‘결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XR(AR/VR/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공모에서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와 함께 원광대학교 내에 XR개발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될 경우, 익산시는 차세대 홀로그램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XR개발지원센터’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원광대 홀로그램연구소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홀로그램 실감콘텐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기반 구축에 사용될 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 받는다.

김 의원은 홀로그램이 미래 기술로서 성장 가능성을 내다 보고, 익산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후, 공모 과정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직접 소통하며, 익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XR개발지원센터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0여억원 규모로 국비 40억 원, 지방비 25억원과 민간 투자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 사업과 병행해 전북의 XR 산업을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김수홍 의원은 “본 사업이 전북 소재 관련 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XR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북 익산이 ‘XR분야 특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 선정으로 익산시의 성장동력이 될 XR 산업 육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이는 전북도 전체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조용식 전 전북청장,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

보선 후 4-5월 민주입당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을 치안특별단장으로 영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청도 도입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재 국가직인 경찰의 약 30%가 자치경찰제 산하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자치경찰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로써 조용식 전 청장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입당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조용식 전 청장은 4·7보선이 끝난 뒤 4~5월경에 정식으로 입당할 예정이며 정치에 관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조용식 전 청장은 동국대 경찰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익산 경찰서장, 서울 경찰청차장 전복 경찰청장을 역임한 뒤 2020년 12월에 정년퇴임했다.

한편 조용식 전 청장의 워킹인 조용순씨는 남성과 원광대를 졸업하고 해병대 수색대 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뒤 청와대 경호실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며 경호본부장을 끝으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후 지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안전 총괄본부장직을 수행해 민주당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은 2022년에 치루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정원원 기자

도내 청년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전북도는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통해 도내 청년층에게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도록 돕고, 복지도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청년의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 문제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2019년도부터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도는 2020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사업단은 서비스를 제공할 10명의 청년들을 채용하고 교육해 4월부터 전북 지역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개인·집단 상담, 운동케어(요가, 필라테스), 집단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이를 통해 자존감 증진, 스트레스 관리, 취업 역량강화, 신체건강과 활력증진을 도모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서비스와 다음 블로 그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3월 23일부터 10월



까지 계속해서 모집할 계획이며, 도내 만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예정인원은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해 신체건강 서비스 84명, 정신건강 서비스 156명 등 모두 240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단 전화(☎ 063-251-2529)와 인스타그램 DM(hj2529),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심신 안정과 취업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강조된다”며 “청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지원 의무화

민주 신영대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설치·운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와 운전자들 연결해



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고, 운영 또한 지자체에만 맡겨놓아 지역별로 이용환경에 차이가 크고, 광역 이동 등에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및 운영은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의 활용 및 연계를 증진하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일 뿐 아니라,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